

# 전문대학교 언어재활과 학생들의 실습 불안과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및 진로결정 수준 인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f Practical Training Anxie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Students Majoring in Language Rehabilitation in College

이명순, 박현  
상지영서대학교 언어재활과

Myung-Soon Lee(flash-on@hanmail.net), Hyun Park(cominglove@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교 언어재활과 학생들의 실습불안,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을 평가하여 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자료들은 18.0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성적, 실습시간에 따라 Mann-Whitney test와 kruskal-wallis test 등 비모수 검정과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재활과 학생들은 학년에 따라 실습불안의 실습내용 및 운영과 실습평가와 진로결정수준의 확신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둘째, 언어재활과 학생들은 성적과 실습시간에 따라 실습불안,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대부분 하위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앞으로 다양한 분석과 표집을 통한 차후 연구로 전문대학교 언어재활과 학생들의 진로 지도 지원에 대한 토대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실습불안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정 수준 |

## Abstract

This study used three types of survey, an anxiety for practice, a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a career decision level for students majoring in language rehabilitation in college in order to provide an effective guide for practice and career decision. By using 18.0 SPSS statistic package, the data has examined with Mann-Whitney test, Kruskal-Wallis test and Bonferroni test based on student's grade, academic record and practice duration.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s. First, based on grade, studen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on several subfactors of the anxiety for practice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Second, based on an academic point and practice duration,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everal subfactors of the anxiety for practice,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the career decision level. Consequently grade, academic record and practice duration influenced student's conception for practice and career.

■ keyword : | Anxiety for Practice |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Decision Level |

## I. 서론

Super[1]는 대학생 시기를 탐색기 후반(14세~24세)과 확립기(24세~44세)초반에 속하며 직업선택을 명료화하고 구체화하여 이 시기는 취업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여 최초로 직업을 가지게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또한 김충기[2]는 이 시기를 진로 전문화기로 명명하였으며 이 시기에 전문적 직업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수의 대학생들은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치관, 직업적 희망, 적성, 진로 등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생이 되어 진로와 관련한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3]. 이러한 것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는데, 대학생이 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 영역 중 첫 번째는 '진로 문제'라고 하였으며[4], 대학 내 상담 센터, 학생 생활연구소에서 보고하는 연구[5]에서도 상담을 받고자 대학생들 중 진로와 적성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고 하였다. 또한 김선중[6]은 중요한 진로 준비기에 대학생들이 직업이나 앞으로의 진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전공을 선택한 후 적성 간 불일치, 전공의 어려움, 사회로 진출할 시점에서의 불투명한 취업 전망 등의 이유로 군에 입대하거나 휴학 등으로 진로 결정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회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언어재활과 같은 보건 의료계열의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이미 보건 계열에 종사하겠다는 직업적 결정을 한 상태로 학과에 입학하게 되며, 졸업 후 전공으로의 취업률이 타 전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도 깊은 평가와 고찰이 부족한 상태로 막연히 진로를 결정하기 쉽다[7]. 따라서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졸업 후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대학 내 보건 계열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진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많은 대학에서의 취업 정보센터와 학생생활 상담

소를 통한 진로지도 서비스는 보건 계열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8]. 이는 현재의 대학 내 진로 프로그램들이 취업 환경이나 배경이 다른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계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한 불안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8].

더불어, 보건 계열 학생들은 실습을 통하여 향후 자기 직업에 대해 미리 실천하고 구체적인 인생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공 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인간관계를 경험한다[9]. 하지만 실습 후 모든 학생들이 실습에 만족하여 언어재활 전공 취업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실습 과정 중 작성해야 하는 많은 보고서와 독립적인 실습 운영, 이론과 실습의 차이, 모호한 역할, 낯설고 복잡한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정, 신체적 피로 등은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오며 실습 불안의 형태로 나타난다[10]. 높은 실습 불안은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언어재활 실습 후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본 연구[11]에 따르면 전공 취업에 대해 '모르겠다'로 응답한 비율이 28.8%에 달해 언어재활 실습 후 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언어재활 실습 후 실습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앞으로의 진로를 불안해하여 진로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룬다던지 또는 졸업 후 진로 결정에 있어 언어재활 전공과 다른 영역으로 떠나버리는 것은 언어재활 전문 인력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언어재활 실습이 단순히 전공 실습 과정으로 그치지 않도록 실습 불안을 줄이고 실습이 진로 적성 탐색과 결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실습 불안과 진로 결정 변인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진로 결정 내용에 관련되는 변인으로는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있다. 진로결정수준이란 '자신의 전공 그리고 직업 선택과 연관된 확신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진로 결정과 미결정을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으며[12] 진로 결정 수준은 진로 선택 및 직업 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 수준으로 여러 요인들에 의해 이 진행 수준이 변화될 수 있다. 진로 결정의 또

다른 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sking Self-Efficacy: CDMSE)은 어떠한 결과 도출에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 신념이며 특정한 과제 수행 및 학업 성취 과정에서 수행을 촉진시켜주는 개인적 특성이기도 하다[13]. 이는 일상의 자신감과 다른 것으로, 주어진 과제 또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 즉 구체적 상황에서의 자신감을 뜻한다[14].

언어재활과는 관련 실습이 3학기에 걸쳐서 교내 언어재활 클리닉에서 학업과 병행해 가면서 이루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습지도와 진로지도가 병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재활 실습 중인 학생과 실습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불안,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을 알아보고 언어재활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언어재활사로서의 업무 이행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진로 결정을 해 가는 과정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로 지도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재활과 학생들은 학년에 따른 성적에 따른 실습불안,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에 차이를 나타내는가? 둘째, 언어재활과 학생들은 성적에 따른 실습불안,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에 차이를 나타내는가? 셋째, 언어재활과 학생들은 실습 시간에 따른 실습불안,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차이를 나타내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경기 지역에 위치한 2개의 전문대학교의 언어재활 전공 재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조사는 언어재활과에서 실습중이거나 실습을 완료한 2학년과 3학년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익명성과 비밀보장, 그리고 강제성이 없음을 알려주고 연구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설문조사는 9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3부를 제외하고 총 169부의 자료를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69)

구분	변인	빈도	백분위 (%)
성별	남성	2	98.8
	여성	167	1.2
연령	19~21세	151	89.3
	22~23세	13	7.7
	24~29세	3	1.8
	30세 이상	2	1.2
학년	2학년	86	50.9
	3학년	83	49.1
성적	A	55	32.5
	B	85	50.3
	C	29	17.2
실습 시간	40 미만	65	38.5
	40~90 시간	58	34.5
	90 시간 초과	47	27.2
실습 분야	신경언어장애	5	3.0
	언어장애	145	85.8
	조음음운장애	5	3.0
	유창성 장애	1	0.6
	청각 장애	1	0.6
	정신지체장애/자폐	11	6.5
	뇌성마비	1	0.6
총계		169	100

##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언어재활과 학생들의 실습불안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1 실습불안설문지

본 연구는 언어재활과 교수 4명에게 예비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에 대해 내용타당도에 대한 검증 후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신뢰도  $\alpha$ 는 .905이며 하위요인으로는 대상자와 상호작용, 실습내용 및 운영, 실습평가, 보호자와 관계 등으로 구분되었다.

### 2.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Betz, Klein, Taylor[15]의

단축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를 번안한 이은경[16]의 도구를 수정한 황현정[15]의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의 신뢰도  $\alpha$ 는 .892였으며 하위 요인으로는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등 5가지로 구성된다.

### 2.3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수준 측정 도구는 Osipow 등[17]이 개발한 진로결정 검사 (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8]와 황현정[19]에서 검증받은 번안본을 활용하였다. 진로결정 수준의 신뢰도  $\alpha$ 는 .933이며 하위 요인은 확신 수준과 진로 미결정 두 가지이다. 진로 미결정은 역채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모든 문항들은 양소호 연구[20]에 근거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에 대한 하위요인과 신뢰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설문지 구성

	구분	항목수(번호)	Chronbach's $\alpha$
실습 불안	대상자 상호작용	4(1, 2, 3, 4)	.767
	실습 내용 및 운영	7(5, 6, 7, 8, 9, 19, 20)	.803
	실습 평가	5(10, 11, 12, 15, 17)	.732
	보호자와 관계	4(13, 14, 16, 18)	.759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자기 평가	4(1, 2, 3, 4)	.811
	정보 수집	5(5, 6, 7, 8, 9)	.730
	목표 설정	3(10, 11, 12)	.707
	진로 계획	5(13, 14, 15, 16, 17)	.813
	문제 해결	4(18, 19, 20, 21)	.765
진로 결정 수준	확신 수준	2(1, 2)	.723
	진로 미결정	16(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930

###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SPSS Ver. 18.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각 설문지의 요인의 점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

째, 실습불안,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을 성격, 실습시간에 따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하위 요인에 대하여 Mann-Whitney test와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실습시간은 40시간미만과 40에서 90시간, 90시간초과로 분류하였다. 이는 학기 당 최소 45시간을 두 학기에 걸쳐서 최소 90 시간을 이수 하여야 하는 언어재활사 국가 시험 응시 조건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사후분석을 위해서 Bonferroni test를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학년에 따른 차이

학년에 따른 실습불안의 정도와 차이를 알기위해서 분석한 결과 2학년은 실습을 마친 3학년에 비해 실습내용 및 운영과 실습 평가에 대한 영역에서 3학년 보다 2.94점, 3.25점 등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 외의 영역에서 평균 점수의 큰 차이가 없었으며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표 3].

표 3. 학년에 따른 실습불안에 대한Mann-Whitney test (N=169)

요인	학년	Mean(SD)	Z(P)
대상자 상호작용	2	3.22(1.02)	-0.107(.915)
	3	3.23(0.93)	
실습 내용 및 운영	2	2.94(1.33)	-1.991(.047)*
	3	2.79(1.14)	
실습 평가	2	3.25(1.15)	-2.591(.010)*
	3	3.05(1.11)	
보호자와 관계	2	2.94(1.07)	-0.082(.934)
	3	2.95(1.01)	

진로결정수준의 확신수준은 3학년은 2.95점, 2학년이 2.67점으로 3학년이 2학년보다 높았고 이는 학년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3학년이 2학년보다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더 높았다[표 4].

표 4.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Mann-Whitney test (N=169)

요인		학년	Mean(SD)	Z(P)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자기 평가	2	3.26(0.86)	-0.744 (.457)
		3	3.32(0.76)	
	정보 수집	2	3.43(0.89)	-.583 (.560)
		3	3.42(0.86)	
	목표 설정	2	3.16(0.96)	-.901 (.368)
		3	3.23(0.88)	
진로 계획	2	3.16(0.93)	-.339 (.735)	
	3	3.14(0.88)		
문제 해결	2	3.45(0.91)	-1.297 (.197)	
	3	3.38(0.80)		
진로 결정 수준	확신 수준	2	2.67(1.00)	-3.045** (.002)
		3	2.95(0.90)	
	진로 미결정	2	3.29(1.16)	-1.178 (.239)
		3	3.34(1.11)	

## 2. 성적에 따른 차이

성적에 따른 실습불안을 살펴보면, 대상자 상호작용 영역에서 학점 간 평균점수는 A학점 3.19, B학점과 C학점은 3.22로 유사한 불안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학점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 내용 및 운영 영역에서 A학점은 2.71, B학점은 2.87, C학점은 3.16으로 나타나 학점이 낮을수록 실습불안의 정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실습평가에서는 A학점 3.00, B학점은 3.21, C학점은 3.28로 학점이 낮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았고 이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보호자와 관계에서 A학점은 2.75, B학점은 3.02, C학점은 3.09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표 5].

Bonferroni 사후분석 결과 실습내용 및 운영에서 A학점과 C학점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 $P < .01$ ) B학점과 C학점이( $P < .05$ )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실습평가 영역에서 A학점과 B학점이 ( $P < .05$ ) 그리고 A학점과 C학점 집단이( $P < .05$ )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보호자와 관계에서 A학점과 B학점이( $P < .01$ ) 그리고 A학점과 C학점이( $P < .05$ )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5. 성적에 따른 실습불안에 대한kruskal-wallis test (N=169)

요인	성적	Mean(SD)	$\chi^2(P)$	사후검증
대상자 상호작용	A	3.19(1.03)	1.276 (.528)	
	B	3.22(0.93)		
	C	3.22(0.98)		
실습 내용 및 운영	A	2.71(1.29)	19.053*** (.000)	A,B<C
	B	2.87(1.20)		
	C	3.16(1.25)		
실습 평가	A	3.00(1.20)	8.001* (.018)	A(B,C)
	B	3.21(1.09)		
	C	3.28(1.12)		
보호자와 관계	A	2.75(1.07)	12.265** (.002)	A(B,C)
	B	3.02(0.99)		
	C	3.09(1.10)		

성적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 영역에서 A 점은 3.41, B 학점은 3.28, C학점은 3.09로 학점이 높을수록 자기평가가 점수가 높았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정보수집 영역에서 A학점은 3.58, B학점은 3.43, C학점은 3.12로 학점이 높을수록 정보수집에 대한 점수도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목표설정 영역에서 A학점은 3.38, B 학점은 3.21, C학점은 2.78로 학점이 높을수록 목표설정의 점수가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진로계획 영역에서 A학점은 3.41, B학점은 3.11, C 학점은 2.79로 학점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문제해결영역에서는 학점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지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진로결정수준의 확신수준 영역에서는 A학점은 3.08, B학점은 2.76, C학점은 2.43으로 학점이 높을수록 확신수준이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진로미결정 영역은 역채점으로 분석되었으며 A학점은 3.54, B학점은 3.31, C학점은 2.90으로 학점이 높을수록 결정수준이 높았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6].

표 6. 성적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 결정 수준에 대한 kruskal-wallis test (N=169)

요인	성적	Mean (SD)	$\chi^2(P)$	사후 검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 평가	A	3.41 (0.86)	16.563*** (0.000)	A)B,C
		B	3.28 (0.74)		
		C	3.09 (0.90)		
	정보 수집	A	3.58 (0.91)	21.773*** (0.000)	A,B)C
		B	3.43 (0.78)		
		C	3.12 (0.99)		
	목표 설정	A	3.38 (0.97)	24.424*** (0.000)	A,B)C
		B	3.21 (0.84)		
		C	2.78 (0.88)		
	진로 계획	A	3.41 (0.91)	42.859*** (0.000)	A)B,C
		B	3.11 (0.85)		
		C	2.79 (0.92)		
문제 해결	A	3.49 (0.91)	4.145 (0.126)	-	
	B	3.41 (0.78)			
	C	3.30 (0.94)			
진로 결정 수준	확신 수준	A	3.08 (0.99)	17.765*** (0.000)	A)C
		B	2.76 (0.92)		
		C	2.43 (0.88)		
	진로미 결정	A	3.54 (1.17)	100.666 (0.000)	A)B)C
		B	3.31 (1.10)		
		C	2.90 (1.08)		

Bonferroni 사후분석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에서 A학점과 C학점이( $P < .001$ )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B학점과 C학점이( $P < .05$ )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정보수집 영역에서 A학점과 C학점 집단이( $P < .001$ ) 그리고 B학점과 C학점이 ( $P < .001$ )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목표설정에서 A학점과 C학점이( $P < .001$ ) 그리고 B학점과 C학점이( $P < .001$ )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진로계획에서는 A학점과 B학점( $P < .001$ ), A학점과 C학점( $P < .001$ ), B학

점과 C학점이( $P < .001$ )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진로결정수준의 확신수준에서 A학점과 C학점( $P < .001$ ) 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진로미결정에서는 A학점과 B학점( $P < .001$ ), A학점과 C학점( $P < .001$ ), B학점과 C학점이( $P < .001$ )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3. 실습시간에 따른 차이

실습시간에 따른 실습불안의 정도를 살펴보면, 실습 내용 및 운영에 대해서 40시간미만이 2.98로 불안의 정도가 가장 높고 90시간초과가 2.71로 불안의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Bonferroni 사후분석 결과 실습내용 및 운영에서 40시간미만과 90시간초과 집단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1$ ).

표 7. 실습시간에 따른 실습불안에 대한 kruskal-wallis test (N=169)

요인	시간	Mean(SD)	$\chi^2(P)$	사후 검증
대상자 상호 작용	40시간미만 <sup>a</sup>	3.19(1.00)	3.982 (0.137)	-
	40~90시간 <sup>b</sup>	3.16(0.98)		
	90시간초과 <sup>c</sup>	3.35(0.95)		
실습 내용 및 운영	40시간미만 <sup>a</sup>	2.98(1.32)	8.289* (0.016)	a)b
	40~90시간 <sup>b</sup>	2.88(1.21)		
	90시간초과 <sup>c</sup>	2.71(1.16)		
실습 평가	40시간미만 <sup>a</sup>	3.24(1.13)	4.172 (0.124)	-
	40~90시간 <sup>b</sup>	3.13(1.15)		
	90시간초과 <sup>c</sup>	3.05(1.11)		
보호자와 관계	40시간미만 <sup>a</sup>	2.96(1.05)	0.428 (0.807)	-
	40~90시간 <sup>b</sup>	2.97(1.06)		
	90시간초과 <sup>c</sup>	2.90(1.01)		

실습시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 영역에서 40~90시간이 3.18점으로 가장 낮고 40시간미만이 3.31, 90시간초과 집단이 3.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진로계획 영역에서 40~90시간이 2.95점으로 가장 낮고 40시간미만이 3.23점, 90시간초과 집단이 3.30점으로 높았으며 이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진로결정수준의 확산수준 영역에서 40~90시간이 2.69로 가장 낮고 40시간미만은 2.72점, 90시간초과는 3.0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진로미결정 영역은 역채점문항으로 40~90시간이 3.16점으로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낮고 40시간미만이 3.33점, 90시간초과가 3.49점으로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8].

표 8. 실습시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 결정수준에 대한 kruskal-wallis test (N=169)

요인	시간	Mean(SD)	$\chi^2(P)$	사후검증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자기 평가	40시간미만 <sup>a</sup>	3.31 (0.81)	8.069* (0.18)	a(c)
		40~90시간 <sup>b</sup>	3.18 (0.83)		
		90시간초과 <sup>c</sup>	3.40 (0.79)		
	정보 수집	40시간미만 <sup>a</sup>	3.45 (0.84)	1.086 (2.32)	-
		40~90시간 <sup>b</sup>	3.35 (0.95)		
		90시간초과 <sup>c</sup>	3.49 (0.83)		
	목표 설정	40시간미만 <sup>a</sup>	3.20 (0.91)	2.921 (2.32)	-
		40~90시간 <sup>b</sup>	3.11 (0.85)		
		90시간초과 <sup>c</sup>	3.28 (0.97)		
	진로 계획	40시간미만 <sup>a</sup>	3.23 (0.87)	22.979*** (0.000)	a(b, b/c)
		40~90시간 <sup>b</sup>	2.95 (0.88)		
		90시간초과 <sup>c</sup>	3.30 (0.93)		
문제 해결	40시간미만 <sup>a</sup>	3.48 (0.89)	5.888 (0.53)	-	
	40~90시간 <sup>b</sup>	3.31 (0.82)			
	90시간초과 <sup>c</sup>	3.45 (0.84)			
진로 결정 수준	확신 수준	40시간미만 <sup>a</sup>	2.72 (0.99)	11.581** (0.003)	-
		40~90시간 <sup>b</sup>	2.69 (0.96)		
		90시간초과 <sup>c</sup>	3.09 (0.87)		
	진로미 결정	40시간미만 <sup>a</sup>	3.33 (1.11)	35.590*** (0.000)	a(b, b/c)
		40~90시간 <sup>b</sup>	3.16 (1.10)		
		90시간초과 <sup>c</sup>	3.49 (1.20)		

Bonferroni 사후분석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에서 40시간미만과 90시간초과 집단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01). 또한 진로계획에서 40시간미만과 40~90시간(P< .001), 40~90시간과 90시간초과(P< .001)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진로결정수준의 진로미결정은 40시간미만과 40~90시간(P< .01), 40시간미만과 90시간초과(P< .05), 40~90시간과 90시간초과가(P< .001)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IV. 논의

언어재활은 임상실습을 중시하는 보건의료계열의 학문으로서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적용하고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구성하는 등의 임상 능력을 연마하고 제반 실무를 해봄으로써 업무 처리 역량을 높여 나간다. 실습을 지도하는 지도 교수나 감독자들은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전공과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습은 학생들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21] 임상실습 동안 생기는 역량부족, 좌절 또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 등은 임상실습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거나 진로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습 과정에서 전문대 언어재활과 학생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실습 만족도를 높이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높여서 확고한 진로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적 지원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문대 언어재활과 실습을 진행 중인 2학년 학생과 실습을 마친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실습불안,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학년, 성적, 실습시간에 따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실습불안,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요인들은 학년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학년은 실습을 마친 3학년에 비해 실습내용 및 운영과 실습 평

가에 대한 영역에서 불안의 정도가 2.94점, 3.25점 등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설문 당시 2학년은 실습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실습을 내용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과 평가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의 확신수준은 3학년이 2학년보다 높았고 학년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3학년이 2학년보다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더 높았다. 이는 3학년이 전공과 진로에 대한 확신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eniels[22]의 전공 선택과 직업 선택의 확신 수준연구에서도 고학년일수록 직업 선택에 강한 확신을 나타내었다고 하였으며 김봉환[23]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둘째, 실습불안,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요인들은 성적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적에 따른 실습불안을 살펴보면, 실습내용 및 운영 영역, 실습평가, 보호자와 관계에서 학점이 낮을수록 실습불안의 정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분석에서 실습내용 및 운영에서 C학점은 다른 높은 학점에 비해 불안의 정도가 높았고 실습평가와 보호자와 관계에서는 A학점이 다른 학점에 비해 유의미하게 불안 정도가 낮았다. 이는 실습불안의 우선적인 원인을 지식부족을 언급한 연구[24]와 일치한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이론적 지식의 기반이 약하고 이 때문에 치료목표나 활동을 구성하고 보호자 상담 및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더 나아가 지도교수나 보호자를 통한 평가에서도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실습에 대한 의욕 저하와 실습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성적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 영역,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영역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문제해결 영역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지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진로결정수준의 확신수준 영역에서는 A학점은 3.08, B학점은 2.76, C학점은 2.43으로 학점이 높을수록 확신 수준이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진로미결정 영역은 역채점으로 분석되었으며 A학점은 3.54, B학점은 3.31, C학점은 2.90으로 학점이 높을수록 결정수준이 높았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성적이 높은 학생은 학업과 실습에 있어서 성공적인 경험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러한 확신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진로결정수준도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낮은 성적은 진로에 대한 낮은 확신으로 이어지고 전공 공부와 실습에서 낮은 성공감으로 인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요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성인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25]와 일치하며 높은 학업 성취도와 진로결정수준은 서로 상호적으로 상승 작용을 한다는 연구[26]와도 일치한다. 또한 실습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는 연구와도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27].

사후분석결과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등의 하위 요인에서 C학점이 다른 학점에 비해 유의미하게 점수가 낮았으며 이는 낮은 성적의 학생들이 이 분야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 결여, 의욕 및 적극성 저하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진로 계획과 진로결정수준의 미결정은 모든 학점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학점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강한 확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실습시간에 따른 실습불안의 정도를 살펴보면, 실습내용 및 운영에 대해서 40시간미만이 2.98로 불안의 정도가 가장 높고 90시간초과가 2.71로 불안의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실습시간 40시간미만은 설문 당시 실습 중인 2학년 학생이며 실습시간 40~90시간과 90시간초과는 실습을 끝낸 3학년이었다. 사후분석 결과 실습내용 및 운영에서 40시간 미만과 90시간 이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실습시간의 경험이 많을수록 대상자에게 진단 및 평가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며 치료활동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불안의 정도가 낮고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습시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 영역과 진로계획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의 확신수준과 진로미결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진로계획에서 40~90시간이 2.95점으로 가장 낮고 40시간미만이 3.23, 90시간초과 집단이 3.30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렇게 40~90시간이 다른 시간들에 비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은 다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40시간미만 집단은 실습을 시작하는 2학년 학생이며 그 외 다른 시간 집단은 실습을 끝낸 집단이다. 40시간이상 집단은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실습 전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문제해결의 상황, 복잡한 변수에 직면하면서 실습 전이나 초기보다 자신감이나 자기효능감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 치료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임상 경험이 적은 음악 치료 전공생들의 경우 이미 마친 자신의 세션에 대하여, 또는 동료 세션이 끝난 후 바로 자신이 진행해야 할 세션에 대한 염려로 긍정적인 역동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26]. 그러나 90시간 초과는 실습불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다른 실습 시간에 비해 많은 경험으로 인해 오히려 실습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증대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많은 실습시간은 학생들에게 실습에 대한 불안을 낮추고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후분석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진로계획과 진로결정수준의 진로미결정 영역에서 40~90시간 집단과 90시간 초과 집단이 공통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같은 학년에서도 실습시간이 많은 것이 진로 결정에 있어서 더 확신이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학교 언어재활과 학생들의 실습과 진로 효율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실습과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학년, 성적, 실습

시간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실습을 끝낸 3학년은 실습을 시작한 2학년보다 대상자에 대한 치료 계획과 활동 구성과 관련한 실습 내용 및 운영 요인에서 불안이 낮고 진로결정수준의 확신수준은 더 높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일탈 없이 학년이 높아지면 실습과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 둘째, 높은 성적은 실습불안을 낮추고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높이는 상승작용을 한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없고 실제 임상에서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실습을 잘 수행하거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실습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산출하지는 않을 수 있다. 업무 수행력의 정도를 판단할 때는 다양한 변인이 있고 그 변인들은 성적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실습의 수행력 또는 업무의 수행력에 대한 판단 요소들을 분석하여 성적 및 다양한 교육적지지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3학년들 중에서도 실습시간이 더 많은 3학년은 실습불안이 더 낮고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높았다. 실습시간을 증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훈련의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황에 대처 능력과 적응 능력이 높아지고 진로 결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실습시간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학과 체제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실습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교 언어재활과의 실습과 진로 지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지만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확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학제를 포함한 표집 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연구 결과의 추이와 일반화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양적 연구에 이어 동일 주제에 대하여 질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실습불안, 진로선택, 업무 수행력에 대한 분석을 성적, 실습시간 이외의 다양한 변인을 찾아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고 진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로 질

적 수준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습불안,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이 향후 언어재활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언어재활 전공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실습불안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전공 취업의 진로 의식을 알아봄으로써 실습과 진로 간 관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실습 및 진로 지도가 이루어져 예비 언어재활사들의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D. E. Super,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CA: Jossey-Bass, 1990.
- [2] 김충기,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1986.
- [3] 김성식,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VI) 대학이후 및 신규 코호트 조사 설계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2010.
- [4] 금명자, 남향자, "전국대학생의 대학생생활 기대 및 정신건강," *인간이해*, 제31권, 제1호, pp.105-127, 2010.
- [5] 신종원, *대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과 희망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6] 김선중,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7] 김명아, 임지영, 김숙영, 김은정, 이종은, 고유경, "간호대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제13권, 제4호 pp.383-391, 2004.
- [8] 이주재, 이계경, "보건계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효능감과 취업 스트레스의 관계," *사회과학 연구*, 제39권, 제3호, pp.319-339, 2014.
- [9] 강연한, 박종삼, "임상실습을 경험한 보건계열 학생들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7호, pp.223-231, 2012.
- [10] 황성자,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05-213, 2006.
- [11] 윤지혜, 김정완, "언어치료 전공 학생들의 언어재활 실습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 *언어치료연구*, 제22권, 제4호, pp.251-270, 2013.
- [12] 김경주, 김기홍, 박경선, "도립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수준 및 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7권, 제2호, pp.1-25, 2012.
- [13] 양선이, "간호대생의 문화적 교류 특성 및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pp.334-345, 2014.
- [14] A.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191-215, 1997.
- [15] N. E. Betz, K. L. Klein, and K. M. Taylor,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 - 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4, No.1, pp.47-57, 1996.
- [16] 이은경,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17] S. H. Osipow, *career decision scale: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80.
- [18] 고향자,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19] 황현정,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20] 양소호, *Likert* 형 척도의 반응 형식에 따른 양호도 비교: 범주의 수와 중립반응범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1] 양선희,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22] J. P. Deniels, "Induction into the workplace: The impact of internship,"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5, No.1, pp.80-95, 1984.
- [23] 김봉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24] 이승주, 박윤기,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 조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제5권, 제1호, pp.25-37, 1993.
- [25] 조성연, 이선순, "성인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pp.127-140, 2006.
- [26] 이소라, *음악치료 전공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임상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27] 광혜원, 이지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pp.147-155, 2016.

저 자 소 개

이 명 순(Myung-Soon Lee)

정회원



- 1994년 2월 : 대구대학교 언어재활과(이학사)
- 2003년 8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 학대학원 언어재활 전공(이학석사)
- 2009년 2월 : 대구대학교 언어재활과 대학원(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상지영서대학교 언어재활과 교수  
<관심분야> : 신경언어장애, 음성장애

박 현(Hyun Park)

정회원



- 2002년 2월 : 대구대학교 언어재활과(이학사)
- 2006년 2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 학대학원 언어재활 전공(이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상지영서대학교 언어재활과 교수  
<관심분야> : 조음음운장애, 청각장애